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약국 개설금지 및 단속강화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위 '담합약국'의 개설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 동안 수집된 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담합금지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였다. 현재 대한약사회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로부터 담합약국 각 56건과 32건 등 88건의 고발사례를 접수, 조사중에 있다.

- 그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례 등과 함께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금번 지침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담당하는 '담합약국'의 유형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담합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향후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금번 지침에서 명시한 '담합약국'의 개설 유형 및 담합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의 대지 및 건물(부속시설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약속처방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 처방약목록을 특정약국에만 제공하여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약국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개설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친족인 경우
-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 연찬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동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관한 연찬회를 11월 17~18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학계전문가,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시·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충북 청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37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였고, 11개 정수장에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내년에는 48개 정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급수인구는 전 인구의 15%정도에 해당하는 7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민들의 대부분이 충치에 이환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중 충치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업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실천성이 높은 충치예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지난 해에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서는 20세기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통한 충치예방』과 함께 백신의 개발 보급, 가족계획과 피임,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등을 선정 발표한 바 있음.
- 최근(2000년 10월 27일) 일본의 NHK라디오 제1방송에서는 우리 나라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현황 소개와 함께 한국이 수돗물불소화로 충치가 줄어 들고 있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영양급식개선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양사회와 합동으로 11월 16일, 국립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에서 영양사 및 복지시설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랑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영양·급식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영양·급식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부랑인·정신요양시설)의 1일 급식비는 2,581원(주식 1,000원, 부식 1,581원)으로 1식 3찬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나, 식재료비가 낮아 영양소로는 칼슘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위 시설 입소자(30~50대가 주류)는 정신장애와 알코올중독 이 외에 비만율이 10%나 되고 고혈압·당뇨환자도 5~10%나 되며, 부랑인시설의 경우 치아가 4개 이상 결손인 인원이 47%나 되나 조리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치료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급식방법은 정량배식이 아닌 자율·부페식 등을 혼용하는 시설이 절반 가까이 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식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음.
-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급식개선을 위해 메뉴의 DB화, 식재료 구

입방법의 개선, 조리인력의 훈련, FOOD BANK의 활용 등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함.

정신장애극복 재활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00년 11월 1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과 과천시 일원에서 전국의 정신보건시설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신장애극복 재활대회』를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와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의 의의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극복을 위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정신장애극복 재활대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별로 사물놀이, 패션쇼, 합창·악기연주 등의 정신재활·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현하는 『재활 프로그램 발표대회』, 과천시 일원의 은행, 우체국 등에서 통장만들기, 엽서보내기 등 팀별로 사회적응훈련코스를 정해진 시간안에 수행하는 『사회적응훈련 대회』, 정신장애 극복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한 『정신장애극복 수기공모전』의 당선작 수기발표와 이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하였음.
- 아울러 본 대회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정신보건관계자 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서울필첼버오케스트라, 작은평화 등의 축하공연이 있고, 1층 입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작품 등도 함께 전시하였음.